

주요 사업

다양한 사업 영역에서 국내 최고의 지위를 확고히 하는 한편,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할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해 나가고 있습니다.



SK주유소



제3고도화 시설

비즈니스 포트폴리오

석유사업

2009년 석유사업은 글로벌 경기 침체 속에서도 Value Chain별 효율성을 강화하여 국내 선두의 위치를 공고히 하였습니다. 국내 판매는 1억 3천 5백만 배럴로 국내 경질유 시장 점유율 37.4%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울러 적극적인 해외 시장 개척으로 1억 5천만 배럴을 수출하여 2008년 150억 불 수출의 탑 수상에 이어 2009년에는 철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습니다.

향후 SK에너지는 석유사업의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Enclean.com의 활성화, 다양한 문화마케팅 등 차별화된 마케팅을 선도하고, 나아가 중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에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아시아 태평양 메이저 컴퍼니로 도약할 것입니다.

● SK에너지 대표 브랜드



가스사업

가스사업은 2009년 매출 6,753억 원을 달성하였으며, 885천 톤을 판매하여 국내 시장의 14%를 점유하였습니다(에너지 관계사인 SK가스와의 통합 시장점유율은 44%임). 2008년부터 2년 동안 사업의 일부를 SK가스로 양도하여 매출 및 점유율은 감소하였으나, 양사 간 생산, 영업, 물류 등 각 분야에서 시너지 창출을 통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국내 LPG 업계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였습니다.

특수제품사업

2009년 특수제품사업은 81만 톤의 아스팔트를 내수 시장에 공급하였고, 170만 톤을 수출하였습니다. 특히 중국에서는 안정적 공급 능력, 우수한 품질 및 마케팅 능력을 바탕으로 수입 아스팔트 시장의 42%를 점유하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향후 특수제품사업은 지난해 당사 최초로 복건성 하문시에 설립한 중국 내수 마케팅 합작 법인을 통한 중국 현지 시장의 마케팅 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고부가 아스팔트 제품 · 기술 개발과 트레이딩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입니다.



페루 카미시아 유전



Brazil BM-C-8 Polvo



LiBS 생산 모습

화학사업

자동차, 전자, 통신의 첨단 소재부터 페인트, 화장품, 세제 등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산업 영역에서 필요한 원·부자재를 공급하고 있는 화학사업은 2009년 893만 톤의 제품을 판매하여 9조 6,608억 원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당사는 화학사업의 미래 수익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특수용제 중심의 기능성 화학제품사업과 고부가가치 복합 수지제품사업, LiBS(Lithium ion Battery Separator) 등 정보전자소재사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www.skchem.com)을 통해 최신 정보를 고객과 공유하는 한편, 온라인 주문에서 출하 현황까지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학사업은 세계 수준의 원가 경쟁력과 품질 우위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최고의 상품과 기술을 제공해 나갈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

석유개발사업은 2009년 말 기준 16개국 33개 광구 및 4개 LNG 프로젝트에서 자원 개발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유 매장량은 2009년 말 기준 5억 배럴을 넘고 있으며, 일평균 생산량 41,221배럴을 기록했습니다. 한편, 1990년부터 석탄개발사업에 진출한 SK에너지는 현재 호주 소재 4개 생산탄광과 4개 탐사 프로젝트, 중국 소재 1개 생산탄광에 투자하여 국내의 안정적 에너지 수급에 기여하고 있으며, 캐나다 및 호주 지역의 우라늄 탐사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린에너지사업

에너지 확보 및 공급을 통하여 국가 경제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해 온 SK에너지는 국가 신성장동력 추진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SK에너지는 Technology Driven Company라는 비전 아래, 세계 최고 수준의 독자적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에너지·화학·소재 분야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사가 개발중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용 배터리, CO₂ 저감 및 자원화 기술, 청정 석탄에너지, 바이오연료, 차세대 박막태양전지, 수소에너지, 스마트그리드 등은 국가 신성장동력 중 녹색기술산업과 첨단융합산업 분야의 핵심기술입니다. 당사는 이를 기반으로 전 세계의 녹색레이스에서 경쟁력과 리더십을 갖춘 글로벌 에너지 기업으로 도약할 것입니다.